

감사의 글

먼저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끝까지 논문을 지도해 주신 송 규동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손 장열 교수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 진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흥돈이형, 승민이 누나, 인호형, 항상 연구실에서 동고동락하며 논문을 지켜봐준 민성이, 승민이, 종주, 항상 일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준 정호, 혜인, 영주, 직장생활 중에도 많은 도움을 준 기형이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던 정원이, 옆에서 힘이 되어준 성훈이, 현정이, 우열이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서울 연구실의 황기, 경석, 영미, 종태, 한진, 희운, 선효, 영태, 정현, 미정, 희원, 원영, 금룡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형배와 종완이, 동완이, 종운이, 형일이, 순태, 재호, 찬식이, 용창이, 혁찬이 솔벗회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있기까지 항상 저를 생각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할머니님과 부모님 그리고 같이 생활하며 힘이 되어준 형님과 형수님, 조카 주호, 가원이, 동생 은아와 성운군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작은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며 누구보다도 타의 모범이 되었지만 먼저 생을 마감한 나의 절실한 친구인 금성이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1999년 6월

송 동 철